

#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하모니 10년'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진행한 제10회 정기연주회 모습.

〈알레지오 오케스트라 제공〉

부침개를 뒤집던 주부가 바이올린을 건다. 의대에서 강의하던 교수는 펜을 놓고 활을 든다. 이렇듯 본업을 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은 존재 자체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주곤 한다.

다양한 직업인과 클래식 전공자 76명이 조화를 이루는 '알레지오 오케스트라(단장 김시환)'가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창단 당시만 해도 전공·비전공자가 한 마음으로 '클래식 10년사 기록'을 쓸 수 있을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가 및 시립예술단원 등 전공자 외에도 다수의 비전공자들이 한데 섞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한팀이 돼 의미있는 앙상블을 이뤘다. 비전공자들도 '객원 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규 단원으로 편성이 됐다. 이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방증한다.

"팀명 '알레지오(Allegrio)'는 셸레림 중 빠르게를 뜻하는 알레그로(Allegro)와 느린 의미를 지닌 아다지오(Adagio)를 합성한 조어입니다. 저마다 음악적 템포가 다른 이들이 하나가 돼, '우리만의 속도를 찾아가자'는 목표를 담았죠."

광주시립교향악단 및 전남대 의과대 관현악반 등에서 활동하는 김시환 예술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예술 현장을 누비며 전공자 못지않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다. 오케스트라 창단에 앞장선 것은 그러한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들 오케스트라는 소리에 민감한 바이올린은 물론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가 주가 된다. 자연히 치열한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팀이 존립될 수 없다. 김 예술감독은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 없는

## 알레지오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직장인·클래식 전공자 단원 76명 정착까지 산전수전... 열정으로 극복 자선음악회 등 연주회 활동 다채 다음달 광주예술의전당 기념음악회

단원의 경우 처음에는 미흡할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기도 한다"며 "악기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술적 재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팀을 유지하며 직면했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정기연주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소규모 앙상블이나 편성해 작은 공연을 이어가며 일상 회복을 기다렸다"는 말에서 저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진행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이번 창단연주회 등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알레지오는 매년 화순전대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올해는 '유닛 앙상블 연주', '초보자를 위한 협주곡의 밤', '클래식과 팝의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기획할 만큼 의욕적이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시간은 녹록치 않은 경험들로 가득하다.

그는 "현재 연습실에 정착하기까지 단원들과 함께 여러 장소들을 전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며 "중립 제습기를 가동해도 악기에 곰팡이가 피던 지하실 등에서 간신히 연습한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단원 중 '영아티스트'인 박우연, 김동건, 천세원 등 7명의 '클래식 주니어'는 주목할 만하다. 주니어 예술가들의 육성은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폐관 예정과 맞물려 지역 신인 등용문인 '금호주니어콘서트'도 중단된 상황이기도 하다. "영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싶어 주니어들을 단원으로 꼭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감독의 설명.

한편 이들은 오는 4월 13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알레지오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발트르 이벨의 '벨라보카 폴카', 존 루터 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헨델 소나타 Op.2 8번 G 단조' 등을 첼로로 감상할 수 있다. '4대의 바이올린과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비발디 협주곡 10번 RV580 Op.3, '말리 교향곡 5번' 등 현악 합주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남대 음악학·석사 과정에서 공부한 박지연과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최성은을 비롯해 목포대 음악학 및 음악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김예령, 전남대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이강민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이어 광주 유일 반도네오니스트 김국주가 피아졸라의 '망각', '사랑하는 아버지' 등을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무형문화재 6인, 봄향기 나는 여섯 소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3일 무등풍류연...민속놀이·한복 체험



지난달 진행한 '무등풍류연' 행사 진행 장면.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공〉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春分)이 목전에 다가왔다. 무형문화재 예인 여섯 명이 '봄'을 모티브로 한 소리를 감상하며, 봄날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3월 무등풍류연 행사 '봄향기, 여섯 소리'를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연다. 이번 행사의 모티브는 '봄'.

1시 체험에 이어 3시부터 너털마당에서 봄맞이 공연 '봄향기 여섯소리'가 펼쳐진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이수자 외 1명이 들려주는 춘향가 중 '만청정산·사랑가' 눈대목을 들을 수 있다. 남도판소리 김선이는 흥보가 돈을 갖게 된 후 기뻐하며 돈의 생김, 속성을 '돈타령'으로 들려준다.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동초제) 방성춘 외 1명은 춘향가 중 '춘향이 그네 뒤는 대

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제18호 가야금병창 문명자 외 4명이 심정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방아타령', 이영애 외 4명이 '호남가, 청산별곡, 도라지타령'을 부른다.

황승욱 외 4명은 '화초타령, 내 고향의 봄, 봄노래'로 우리 민영을 선사한다. 악사로 고수 양신승, 대금 임황철, 아쟁 유서정이 출연하며 풍물세상 굿패마루 '길놀이, 판굿'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민속놀이 체험을 마지면 뷔은콩도 받아갈 수 있다.

전통문화관 이형동 차장은 "무등풍류연은 우리 24절기를 모티브로 가야금 병창, 민요 등 다양한 '전통의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무형문화재 6인이 들려주는 판소리 대목들을 감상하며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깨고, 흔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장욱 시인, 시산맥창작기금 공모당선시집 '태양의 눈...' 펴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니 시의 본질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다.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들을 부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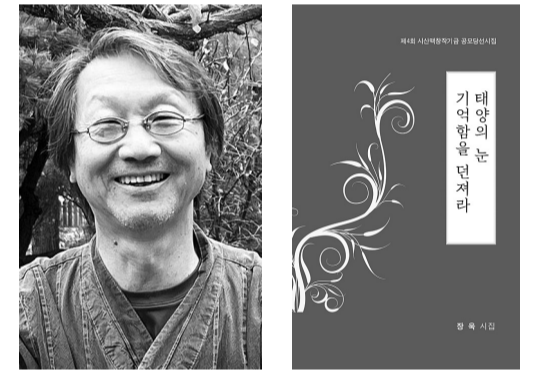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시인들은 기존의 문법, 기존의 시 세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전주기전증 교장을 역임한 장욱 시인이 제4회 시산맥창작기금 공모당선시집 '태양의 눈 기억함을 던져라'를 펴냈다. 도서출판 '달을 쏘다'에서 발간된 이번 시집은 오민석 평론가의 말대로 '깨고, 흔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뚫어내는 움직임들'을 시로 구현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나의 시는 나를 스스로 존재하게 하고, 현재를 부스러뜨리고 영원의 뜰로 끌어가는 구원자이기를 소망한다'며 "나는 흔들림으로 살아 있다. 살아간다"고 전한다.

그의 말대로 이번 작품들에서 "현재를 부스러뜨리는 열정은 새로움을 향한 에너지로 전이된다."

"내면을 흔들며// 질문하고 답하고 소리치고 내 동맹이여, 부스러진 껍데기 파편을 버리는 중이다 // 비틀린 모서리 핏빛 관절을 못질하여 하나의



장욱 시인

의자로 깊이를 파내는, 끔찍 앓는 사랑 망가진 시간 틈에 끼어들어 고뇌와 고심을 앓는 병..."

위 시 '의자, 출렁이다'는 "편한 팔걸이와 등받이 높이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나아가려는 변신을 상징화한다. 고뇌와 고통이 없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아픔을 인내하며 화자는 '버리고', '부수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한편 장욱 시인은 1992년 문학사상 신인발굴대상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예총회장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사랑살이', '겨울 십자가', '두방리에는 꽃피리새가 산다', '분꽃 상처 한 잎'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체부 지역예술단체 육성 지원 공모

다음달 24일까지 모집...단체당 최대 2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말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다채로운 예술단체가 각 지역을 연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을 모색했다. 그 후속조치로 문체부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 10개 내외를 선정,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나라도응 누리집 통해 지원,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한다.

이번 공모는 클래식(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서 진행한다. 신청 단체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지역에 기반을 두면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선정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자,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개별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